

#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背景

陳政煥\*

- I. 머리말
- II. 新樣式 石佛의 成立
- III. 新樣式 石佛의 定着과 變化
- IV. 新樣式 石佛의 編年과 造成背景
- 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에서 살펴볼 고려전기는 고려 건국에서부터 1070년까지이며,<sup>1</sup> ‘新樣式 石佛’은 고려전기에 등장한 새로운 조형미를 보이는 석불로, 論山 開泰寺 石造三尊佛이나 論山 灌燭寺 石造菩薩立像 등처럼 장대하면서도 세장함을 겸비한 조형미를 띠는 상들을 의미한다.<sup>2</sup>

이러한 신앙식 석불 가운데, 개태사 석조삼존불이나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은 일찍이 고려전기 석불의 기준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安城 梅山里 石造菩薩立像, 扶餘 大鳥寺

\* 國立中央博物館 學藝研究士

1 고려시대의 불상·석탑·승탑 등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볼 때, ‘宋과의 국교 회복’과 ‘開京 환도’를 분기로 전·중·후기 총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고려전기를 고려 건국부터 1070년까지로 보고자 한다.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서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研究』 265(2010. 3), pp. 43-71;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13), pp. 9-12.

2 고려전기에는 통일신라 불교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계승·변화시킨 전통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과 더불어 삼국시대 석탑이나 석불을 모방한 복고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도 등장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장대하면서도 세장한 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고려전기에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의미에서 ‘신양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식은 점차 전통양식과 복고양식의 불교석조미술품과도 결합되어 절충양식이 등장한다. 陳政煥, 위의 논문(2013), pp. 13-22.

石造菩薩立像 등도 보관 착용 불상으로서 조성배경 등이 주목받아왔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불상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고려전기 석불에서 볼 수 있는 신앙식의 성립과 변모, 등장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으며 정착되고 변용되었는가와 더불어 신앙식 석불의 조성배경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태사 석불의 조형적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신앙식 석불을 대표하는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한 석불입상이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그 편년과 조성배경에 대해 규명해보겠다. 이를 통해, 후삼국기의 혼란기를 겪고 통일왕조의 기틀을 다져가던 시기인 고려전기 당시 신앙식 석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지녔는가를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新樣式 石佛의 成立

論山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도 1)은 협시보살상의 상체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넓은 띠(條帛)와 둥근 형태의 腰袍자락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sup>4</sup> 전체적으로 신체와 머리의 너비 차가 크지 않아 큰 돌기둥[石柱]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 앞 시기 불상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성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을까. 이를 규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개태사 석불의 원류로 여겨졌던 慶北 北部地域의 후삼국기 석

<sup>3</sup> 文明大,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毘盧舍那丈六三尊佛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1981. 12), pp. 1-11; 金春實, 「忠南 連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本尊像과 右脇侍 菩薩像이 後代의 模作일 가능성에 대하여-」, 『百濟研究』 21(1990), pp. 111-141;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 14(2000. 12), pp. 3-34;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研究-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2002. 6), pp. 287-312; 丁晟權,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의 조성시기에 관한 연구」, 『범정학술논문집』(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pp. 294-307; 崔聖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미술사논단』 16·17(2003. 12), pp. 79-113; 문명대, 「대조사(大鳥寺) 석미륵보살상과 관촉사(灌燭寺) 석미륵보살상」,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a), pp. 119-139; 丁晟權, 「論山 開泰寺 石造供養像 研究-조성시기와 조성배경에 관하여-」, 『佛教美術』 23(2012), pp. 59-93;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 2013), pp. 21-58.

<sup>4</sup> 이러한 착의법은 唐宋五代 특히 吳越·閩의 불상의 영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성은, 위의 책(2013), pp. 44-50. 그러나 7세기 중엽-말기의 여래상이나 보살상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이러한 특징을 전적으로 외래적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前時代 불상의 모방 또는 재현으로 볼 수도 있다.



도 1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高麗 936-940年, 本尊佛 높이 4.07m, 寶物 219號, 忠南 論山  
(우측 도면: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 p. 107, 그림 4-6.)

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삼국기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奉化 千聖寺 石佛立像, 榮州 石橋里 石佛立像 등과 같이 비만함과 양감이 강조된 상이 있는가 하면, 건장하지만 밋밋한 양감을 보이는 흐름이 있었다.<sup>5</sup> 이 가운데, 개태사 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醴泉 東本里 石佛立像, 榮州 毘盧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다.



도 2 東本里 石佛立像  
高麗 927年 頃, 높이 1.18m  
寶物 427號, 慶北 醴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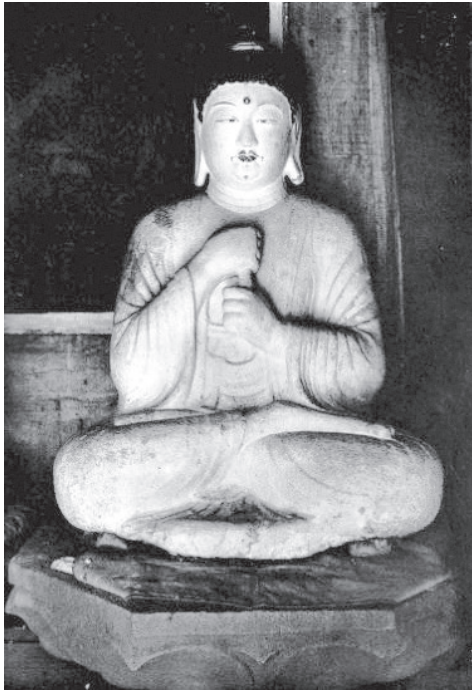
醴泉 東本里 石佛立像(도 2)은 착의법, 얼굴과 손의 형태는 개태사 상과 다르지만, 석주와 같은 괴체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볼 때, 개태사 상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동본리 상의 조형미는 전통양식을 변형시킨 奉化 千聖寺 石佛立像, 榮州 石橋里 石佛立像, 榮州 邑內里, 醴泉 欣孝里 石佛立像 등과 완전히 달라,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10세기 석탑의 특징을 보이는 동본리 삼층석탑을 고려할 때,<sup>6</sup> 동본리 석불입상의 조성시기도 10세기

<sup>5</sup> 陳政煥, 「慶北 北部地域의 羅末 佛像에 對한 考察」, 『新羅文物研究』 5(2011), pp. 3-25.

<sup>6</sup> 10세기 이후에는 完州 鳳林寺址 五層石塔, 醴泉 東本里 三層石塔, 金泉 靑巖寺 修道庵 西三層石塔 등처럼 하층기단의 탱주가 1주이지만 상층기단의 탱주가 없는 석탑이 등장한다.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2010), pp. 165-170.

초일 가능성이 높다.<sup>7</sup> 이 때는 예천지역에 대한 고려-후백제의 쟁탈전에서 최종적으로 고려가 승리했던 시기였으므로,<sup>8</sup> 동본리 석불입상은 고려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榮州 毘盧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도 3)은 같은 절에 있는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sup>9</sup> 그러나 榮州 毘盧寺 石造阿彌陀佛坐像(도 4)은 ‘身體·相好’의 비례가 적절하며 어깨가 넓어 건장함과 장대성이 극대화 되었으며 옷주름도 자연스러워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0</sup> 반면, 비로자나불좌상은 육



도 3 毘盧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高麗 931年 頃, 높이 1.18m  
寶物 996-2號, 慶北 榮州



도 4 毘盧寺 石造阿彌陀佛坐像  
統一新羅 8世紀末-9世紀初 높이 1.13m  
寶物 996-1號, 慶北 榮州

<sup>7</sup> 陳政煥, 앞의 논문(2013), pp. 54-57.

<sup>8</sup> 후백제는 907년 선산 일대를 공략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 건국 이후인 922년에 下枝城 장군 元逢이 고려에 귀부하고, 견훤이 지속적으로 近巖城을 탈환하고자 한 것이나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 전 龍門寺에 들러 杜雲禪師를 만나고 통일 직후 용문사를 중건하였다는 龍門寺重修記를 볼 때, 예천지역은 친고려적 지역 내지 고려와 우호적으로 연결되었던 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성희, 「高麗初 예천 지역세력과 開心寺 석탑 건립」, 『釜大史學』 25·26(2002. 6), pp. 2-7.

<sup>9</sup> 文明大, 「毘盧寺 石造毘盧阿彌陀二佛像의 考察」, 『考古美術』 136·137(1976), pp. 126-133.

<sup>10</sup> 陳政煥, 앞의 논문(2011), p. 22.

계와 머리가 불분명하고 얼굴은 넓적하며 상체가 비대한 반면 하체는 그 두께와 폭이 좁아 전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데, 아미타불좌상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에서 9세기 후반에 조성된 榮州 浮石寺 慈忍堂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나 榮州 聖穴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특징이다.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오히려 예천 동본동 석불입상의 양식적 특징과 유사하므로, 10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11</sup>

앞서의 추론이 맞다면,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주체는 毘盧寺 眞空大師塔碑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sup>12</sup> 930년 載巖城 장군 善弼과 함께 眞空大師가 왕건에 귀의하자,<sup>13</sup> 왕건은 小白山寺(비로사)를 중수하여 진공대사를 安居시켰으며 931년에는 친히 비로사를 방문하기까지 한다. 선필이 귀부한 시점(930년 1월 2일)이 古昌戰鬪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한 시점(930년 1월 21일)보다 20여 일 앞선 것<sup>14</sup>을 고려할 때 경북 북부지역이 이미 왕건의 판도 아래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 중앙의 장인이 비로사 중수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개태사 석조삼존불의 양식적 원류로 볼 수 있는 동본리 석불입상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모두 고려의 승전지에 조성된 석불이라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그 양식적 원류는 고려 중앙, 즉 경기지역에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후삼국 통일 전 고려지역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한다. 그 첫 번째는 통일신라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장식성이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 安城 奉業寺址 石佛立像과 같은 경향이다.<sup>15</sup> 두 번째는 통일신라 전통양식을 계승한

11 한편, 웅장하면서도 정연한 치석수법을 보이고 佛國寺 幢竿支柱와 유사한 毘盧寺 幢竿支柱는 통일신라 중기(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嚴基杓, 『統一新羅時代의 幢竿과 幢竿支柱 研究』, 『文化史學』 6·7(1997. 6), pp. 301-358. 반면, 939년에 건립된 진공대사탑비나 비로사 석탑의 부재는 9세기 전반 이전 석탑에 비해 규모가 작은 10세기 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차가 나는 불교석조미술품의 공존은 두 불상이 동시에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12 許興植 編著, 『榮豐毘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亞細亞文化社, 1984), pp. 296-303;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普法塔碑片 發掘과 그 內容』, 『목간과 문자』 2(2008. 12), p. 211.

13 師遠自南方來儀北境重葺小白山寺遙請居之 大師忽奉紫泥潛膺素懇便遷郁錦方副襟懷纒啓蓮扉稻麻有列廣開茅舍桃李成蹊長興二年秋七月特□□□□□□戎之勢方迴聖駕將披禮像之誠乍駐鑾輿恭趨理窟猶似峒崆之間亦如汗漫之遊虔仰雪眉冀聞風旨 大師謂曰齊皇北幸.

14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3年.

15 庚寅 十三年 春正月 丁卯 載巖城將軍善弼來投; 丙戌 王自將軍古昌郡瓶山 甄萱軍石山 相去五百步許 遂與戰 至暮萱敗走 獲侍郎金渥 死者八千餘人 是日 古昌郡奏 “萱遣將, 攻陷順州 掠人戶而去 王即幸順州 修其城 罪將軍元奉.

16 봉업사에서 출토된 『三年乙酉八月日竹口 / 瓦草伯土能達毛』銘 기와로 미루어 볼 때, 봉업사지 석불은 淸州 출신 能達에 의해 92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청주지역은 궁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이다. 陳政煥, 앞의 논문(2013), pp. 67-69; 정성권,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봉업사지 석불입상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51(2013. 5), pp. 167-197.



도 5 포초골 石佛坐像  
10세기 전반, 높이 1.7m  
京畿有形 35號, 京畿 麗州

상에 비해 방형의 괴체적 형태미를 보이는 麗州 포초골(大成寺) 石佛坐像(도 5)과 같은 경향이다.<sup>16</sup>

앞서 살펴본 경북 북부지역의 기념비적인 석불 2구는 포초골 상과 더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데, 특히 포초골 석불좌상의 장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괴체감, 둥글고 살이 부푼 얼굴의 형태, 작은 코와 입은 비로사 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인다.<sup>17</sup>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불상 가운데 여주지역의 석불양식이 경북 북부지역의 석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는 고려가 신라의 내륙지역 즉 경북 북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여주-원주-충주로 연결되는 남한강수계를 주로 사용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8</sup> 실제로 남한강수계의 선종사원들이 왕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up>19</sup> 원주일대에서 포초골 석불좌상과 양식적으로 가까운 불상을 살펴볼 수 있어,<sup>20</sup>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요컨대 개태사 석조삼존불 조성 이전에 이미 고려의 중앙 즉 경기지역에 괴체적 형태미를 강조하는 석불양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왕명으로 조성된 개태사 석조삼존불은 고려 중앙의 양식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sup>16</sup> 陳政煥, 앞의 논문(2011), pp. 22-23; 陳政煥, 앞의 논문(2013), pp. 54-57.

<sup>17</sup> 포초골 상, 비로사 상, 개태사 상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둥글고 살쥔 얼굴 형태와 작은 코와 입은 <太祖王建銅像>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왕건집권기에 이러한 얼굴을 한 불상이 등장한 이유가 어쩌면 왕건을 모델로 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sup>18</sup> 고려시대 경북 북부지역(선산 이북 지역)의 조세를 忠州 德興倉에 모았다가 남한강수계를 통해 개경으로 옮겨진 것으로도, 남한강수계가 후삼국기 고려의 對新羅 進擊路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었던 곳임을 방증한다.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혜안, 2014), pp. 116-122.

<sup>19</sup> 김혜완, 「나말러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9(2008. 3), pp. 257-292.

<sup>20</sup> 원주일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왕건집권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原州 一山洞 石造毘盧遮那佛坐像과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原州 出土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 있는데, 이 두 상은 궁예집권기에 조성된 불상의 장식성을 계승하면서 포초골 석불에서 볼 수 있는 건장함이 반영되었다. 陳政煥, 앞의 논문(2013), pp. 72-73.

조형물이었던 만큼 일부분에 대한 과장과 변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의 조형미는 다음 장에 살펴볼 괴체적 석주형의 신앙식 석불뿐만 아니라 전통양식이나 북고양식의 석불 등에 영향을 끼쳤다.

### Ⅲ. 新樣式 石佛의 定着과 變化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의 영향을 받은 상 중 괴체적 석주형 조형미가 두드러진 一群의 상들은 方形의 天蓋가 있는 소위 冕旒冠形 寶冠을 착용하고 있는데,<sup>21</sup> 安城 梅山里 石造菩薩立像(도 6), 論山 灌燭寺 石造菩薩立像(도 7), 扶餘 大鳥寺 石造菩薩立像(도 8), 抱川 舊邑里 石造菩薩立像(도 9), 唐津 安國寺址 石佛立像(도 10), 益山 古都里 石佛立像(도 1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한 상은 천개의 형태에 따라, 제왕이 착용하는 冕冠과 같은 직사각형 천개와 정사각형 천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사각형 천개를 보이는 상은 매산리 상, 관촉사 상, 대조사 상 등이며, 안국사지 상과 고도리 상은 정사각형 천개를 보인다. 구읍



도 6 梅山里 石造菩薩立像  
高麗 960年 頃, 높이 5.6m  
京畿有形 37號, 京畿 安城



도 7 灌燭寺 石造菩薩立像  
高麗 970年 頃, 높이 18.2m  
寶物 218號, 忠南 論山



도 8 大鳥寺 石造菩薩立像  
高麗 11世紀 前半, 높이 10.0m  
寶物 217號, 忠南 扶餘

<sup>21</sup> 원통형 高冠 위에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의 天蓋가 결합된 형태의 보관은 通天冠과 冕冠으로 이루어진 冕旒冠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冕旒冠形 寶冠’으로 지칭하겠다.



도 9 舊邑里 石造菩薩立像  
高麗 10世紀 後半, 높이 4.4m  
京畿 抱川



도 10 安國寺址 石佛立像  
高麗 1030年, 높이 4.91m  
寶物 100號, 忠南 唐津



도 11 古都里 石佛立像  
高麗 11世紀 後半, 높이 4.24m  
寶物 46號, 全北 益山

리 상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나 천개의 뒷부분이 원형을 이루고 있어, 앞서 언급한 5구와는 다른 계통이거나 과도기적 양상의 일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한 상은 원통형 관의 형태에 따라 아랫부분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은 원뿔대 형태를 보이는 것과 폭이 동일한 원기둥 형태의 것이 있는데, 매산리 상과 관촉사 상은 원뿔대 형태를 보이며 나머지 상들은 원기둥 형태를 보인다. 한편,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은 면류관형 보관 위에 유사한 형태의 작은 보관이 올라간 이중구조인데, 관촉사 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의 형태가 동일하나 대조사 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관촉사 상의 이중 보관이 원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태사 상의 얼굴과 가장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석불은 매산리 상이다. 다만 매산리 상은 개태사 상과 달리 아래턱이 부각되었는데, 관촉사 상, 대조사 상, 구읍리 상 역시 아래턱이 강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한편, 관촉사 상은 상당히 이목구비가 크고 양감이 느껴질 정도로 입체감이 있는데, 18m가 넘는 대불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사 상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이지만 양 볼에 살집이 있어 강인한 인상을 준다. 비록 金泉 殷其里 磨崖菩薩半跏像, 利川 太平興國 6年(981)銘 磨崖菩薩像 등에서 볼 수 있는 작고 평면적인 이목구비를 보이기는 하지만, 10세기 후반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좁은 콧방울과 두터운 입술을 보이고 있어, 대조사 상은 10세기 후반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읍리 상의 얼굴은 팽창된 양감을 보이는 포천지역의 철불좌상과 유사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국사지 상과 고도리 상은 앞서 살펴본 상

과 달리 얼굴의 크기가 작고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른 조형의식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모양은 두 손을 모아 복부에 댄 고도리 상을 제외하고는 개태사 상의 손모양을 바탕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특히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은 용화가지를 쥐고 있어 두 상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읍리 상과 안국사지 상은 阿彌陀九品印처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어 주목된다.

착의법은 편단우견식과 大衣 형식의 菩薩衣를 착용한 형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편단우견식 착의법을 보이는 석불은 개태사 상과 매산리 상이다. 매산리 상에서 개태사 우협시보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의 깃의 접힌 둥근 옷자락과 양 다리 사이의 매듭과 술 장식을 살펴볼 수 있어 두 상 사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 형식의 보살의를 착용한 석불들은 세부표현이 각기 차이를 보이는데, 관촉사 상은 개태사 우협시보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허리 아래쪽의 둥근 옷자락과 다리에 새겨진 U자형 옷주름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대조사 상은 통견식의 大衣와, 內衣, 裙衣를 갖춰 입고 있다.

특히,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른쪽 어깨 위를 덮은 반달 형태의 옷자락, 왼쪽 팔뚝 부근에는 옷주름이 접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삼각형 옷주름, 가슴 아래쪽에는 굽은 내의의 띠와 치마를 묶은 띠매듭 등이 조각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착의법과 세부형식은 중국 唐代인 782년의 南禪寺 釋迦佛坐像이나 佛光寺 阿彌陀佛坐像은 물론 947년 宋暉 발원 石造阿彌陀佛坐像과 957년의 中京 大定府城址 출토 石造釋迦佛坐像과 같은 唐末五代의 불상에서도 꾸준히 살펴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1038년 大同 下華嚴寺 塑造佛(도 12)과 같은 요대 불상, 治平 4년(1067년) 陝西 鐘山石窟 萬佛洞 釋迦佛像 등 宋代 불상에도 보이는 형식이다.

특히 대조사 상은 요나라 불상의 특징인 타원형의 얼굴에 양 볼의 살이 두드러지며 좁고 부푼 것 같은 콧방울과 두터운 입술



도 12 下華嚴寺 釋迦牟尼佛坐像  
中國 遼 1038年  
中國 山西省 大同

을 보이고 있어,<sup>22</sup> 요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대조사 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장한 형태는 요대 불상 가운데에서도 大同 下華嚴寺 소조불과 가장 유사하며, 고려중기 이후 대조사 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착의법이 전형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볼 때,<sup>23</sup>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역시 11세기 중엽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은 대의를 착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관촉사나 대조사 상과 달리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적인 착의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 또한 구읍리 상이 신앙식과 전통양식이 절충된 불상임을 보여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안국사지 상은 마멸이 심하여 세부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도리 상도 道袍式 大衣를 착용하였으나 매우 단순하고 도식적이다.

표 1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形式 및 樣式 比較

名稱	寶冠	相好	着衣法	形態
開泰寺 石佛立像	없음	圓形	偏袒右肩	圓筒形
梅山里 石造菩薩立像	원뿔대+直四角形	圓形+下顎 強調	偏袒右肩	圓筒形
灌燭寺 石造菩薩立像	원뿔대+直四角形+二重	圓形+下顎 強調	通肩式 大衣	圓筒形
大鳥寺 石造菩薩立像	원기둥+直四角形+二重	橢圓形+下顎 強調	通肩式 大衣+覆肩衣	梯形
舊邑里 石造菩薩立像	원기둥+變形(角形+圓形)	橢圓形+下顎 強調	通肩式 大衣	梯形
安國寺址 石佛立像	원기둥+正四角形	正方形	通肩式 大衣	圓筒形
古都里 石佛立像	원기둥+正四角形	正方形	通肩式 大衣	梯形

또한 면류관형 보관 착용 석불은 형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태사 상처럼 상·하체 폭이 동일한 원통형인 상으로, 매산리 상, 관촉사 상, 안국사지 상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하체가 넓고 상체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梯形)이며 단면이 방형인 상으로, 대조사 상, 구읍리 상, 고도리 상이 이에 속한다. 다만, 대조사 상은 어깨에 비해 얼굴의 폭이 좁아 장중하고 묵중한 느낌을 주는 반면, 구읍리 상은 어깨의 폭이 얼굴과 거의 유사하여 날렵한 조형미를 보인다.

신양식 석불의 비례를 살펴보면, 개태사 상과 매산리 상의 ‘像高:頭高’의 비례가 각각

<sup>22</sup> Marilyn Leidig Gridley, *Chinese Buddhist Sculpture under the Liao*(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1993); 鄭恩雨, 「遼代 佛像彫刻의 研究(I), 『미술사연구』 13(1999. 12), pp. 83-118; 배진달,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pp. 343-373; 鄭恩雨, 「송대 불교 조각의 고려 유입과 선택」, 『미술사연구』 25(2011. 12), pp. 39-65.

<sup>23</sup> 鄭恩雨, 「고려 중기 불교 조각에서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研究』 265(2010. 3), pp. 43-71.

7.83:1과 7.03:1로 가장 近似한 비례를 보인다. 한편, 관촉사 상과 대조사 상은 머리 부분이 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像高:頭高’의 비례가 4:1정도를 보이는데, 이는 각각 18m, 1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머리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손의 비율이다. 매산리 상, 관촉사 상, 구읍리 상은 개태사 상처럼 손이 큰 반면, 대조사 상, 안국사지 상, 고도리 상은 손의 크기가 작는데, 손이 작다는 것은 곧 개태사 상의 조형적 특성이 퇴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 가운데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이 신앙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반면,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은 신앙식과 전통양식이 절충되었으며, 안국사지 석불입상과 고도리 석불입상은 세장한 석주형으로 변형되었다. 전통양식과 절충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을 제외한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을 양식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과의 친연성에 따라 조성의 순서를 나열해보면, 매산리 석조보살입상→관촉사 석조보살입상→대조사 석조보살입상→안국사지 석불입상→고도리 석불입상 순일 것으로 추정된다.

#### IV. 新樣式 石佛의 編年과 造成背景

지금까지 개태사 석불의 편년과 조성배경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개태사 상의 조성목적은 표면적으로 후삼국 통일에 도움을 준 부처와 산신령에 대한 보답이지만,<sup>24</sup> 개태사가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장소라는 점<sup>25</sup>에서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힘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한 기념비적인 조형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태사 상과 가장 친연성이 있는 매산리 상의 조성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편년을 추론할 수 있는 관촉사 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관

<sup>24</sup>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忠清道 連山縣 佛宇.

開泰寺 …… 高麗太祖十九年 征百濟 大克 獲河內三十餘郡 及渤海國人皆歸順 乃命有司 創開泰寺 親制願文 手書略曰 …… 答佛聖之維持 酬山靈之贊助 特命司局 勅造蓮宮 乃以天護爲山號 以開泰爲寺名云云 所願 佛威庇護 天力扶持云云.

<sup>25</sup> 정성권,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조성배경 再考-太祖 王建軍 屯營址 馬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白山學報』 92(2012. 4), pp. 197-229.

축사사적비」에 따르면 970년부터 1006년까지 조성된 것이라고 하나,<sup>26</sup> 실제로는 970년부터 광종 말년인 975년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7</sup>

관촉사 상이 970년 무렵에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매산리 상은 개태사가 완공된 940년부터 관촉사 상이 조성된 970년 사이 어느 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매산리 상이 개태사 상과 달리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류관형 보관이 매산리 상보다 이른 시기의 불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라는 점을 볼 때, 모종의 정치·사회적 변동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은 광종 11년(960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다. 960년에 광종은 「峻豊」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百官의 公服을 제정하는 한편 開京을 皇都라 칭한다.<sup>28</sup> 즉 광종은 960년 ‘稱帝建元’을 통해 고려가 황제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다.<sup>29</sup> 백관의 공복 제정과 함께 황제의 복식도 새롭게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란에서 자체 복식이 정해지기 전까지 중국식 면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광종 역시 황제의 복식 제정 시 중국의 복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sup>30</sup>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의 면류관형 보관은 旒만 없을 뿐 冕板이나 冠의 형태가 중국식 면류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황제 즉 광종의 면류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광종은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아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므로,<sup>31</sup> 매산리 상

26 朝鮮總督府 編, 「恩津灌燭寺事跡碑」, 『朝鮮金石總覽』下(朝鮮總督府, 1919), pp. 1153-1155.

稽古高麗光宗之十九年己巳 沙梯村女 採蕨于盤藥山西北隅 忽聞有童子聲 俄而進見 則有大石從地中聳出 心驚之 歸言其女婿 婿即告于本縣 自官秦上達 命百官會議 啓曰此必作梵相之兆也 令尙醫院遣使入路 敷求掌工人 成梵相者 僧慧明應舉 朝廷擢工匠百餘人 始事於庚午 訖功於丙午 凡三十七年也.

27 문명대, 「개태사(開泰寺) 석장륙삼존불입상-노사나(盧舍那) 장륙불상과 관련하여」,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b), p. 121.

28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1年 3月.

十一年 春三月 …… 定百官公服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29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제후국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金基德, 「高麗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國史館論叢』78(1997), pp. 159-172. 그러나 ‘칭제건원’한 이 시기만큼은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 柳喜卿, 「冕服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研究 論叢』22(1973), pp. 223-275; 任明美,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2-4)-A.D 960-1142년 사이 200년간 北宋, 遼와 교류당시의 高麗 服飾」, 『服飾』20(1993. 5), pp. 31-42; 전혜숙·김혜정, 「고려초 복식기록에 관한 고찰-광종·경종·성종대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15-1(2013. 2), pp. 139-151.

31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4年 12月.

冬十二月 行宋年號 宋遣冊命使時贊來 在海遇風 溺死者九十人 贊獨免 王特厚勞之.

은 960년~963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한편,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고려의 왕도인 개경에서 三南地方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상의 분기점인 竹州山城 동편에 입지해있다.<sup>33</sup> 광종은 이처럼 중요한 거점지역에 면류관을 쓴 황제를 형상화한 매산리 상을 조성함으로써, 호족세력을 압박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稱帝建元한 960년부터 호족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을 단행한 것을 볼 때,<sup>34</sup> 매산리 상은 국가의 권력이 호족이 아닌 황제 즉 광종 자신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 관촉사 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조성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광종은 ‘칭제건원’한 庚申年 즉 960년부터 광종 재위말년인 975년까지 호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는데, 갑자기 968년 광종은 그동안의 숙청작업의 죄를 소멸하려는 재회를 베푼다.<sup>35</sup> 이 기록은 광종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음을 암시한다. 開寶年間(968년~975년) 귀법사의 승려 정수가 균여를 참소한 사건 역시 지배세력 내 균열을 보여준다.<sup>36</sup> 971년 12월과 972년 2월에 연속해서 일어난 천재지변과 972년 8월의 사면령도 광종 말기의 호족의 반발과 민심의 이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37</sup>

한편, 관촉사 상의 조성배경으로 佛力으로 勳臣老將의 반발을 억제하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광종의 심리적 자화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38</sup>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견해에는 훈신노장의 근거지와 먼 논산에 조성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1011년 거란의 침공으로 현종이 남천하면서 전주에 들르려 하자 신하 중 하나가 전주의 反高麗 정서를 우려하며 머물지 말기를 주청한 점을 볼 때,<sup>39</sup> 호족들의 반발이 급증하고 자연재해가 창궐하던 시기 옛 후백제지역과 후백제 유민의 이반에 대한 염려로 조성되었

<sup>32</sup> 丁晟權, 앞의 논문(2002. 6), pp. 287-312.

<sup>33</sup> 丁晟權, 위의 논문(2002. 6), p. 297.

<sup>34</sup> 『高麗史』卷93 列傳6 崔承老.

自庚申至乙亥 十六年間 姦兇競進 讒毀大興 君子無所容 小人得其志 遂至子逆父母 奴論其主 上下離心 君臣解體 舊臣宿將 相次誅夷 骨肉親姻 亦皆滅.

<sup>35</sup>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9年.

王信讒多殺 內自懷疑 欲消罪惡 廣設齋會.

<sup>36</sup> 『均如傳』第九感應降魔分者.

開寶中 歸法寺僧正秀 詣法官 讒搆曰如師有異情修行 官奏其事 光宗聞之 怒促召師 入欲害之.

<sup>37</sup>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22年; 23年.

辛未 二十二年 冬十二月 壬寅 地震; 壬申 二十三年 春二月 地震 秋八月 赦.

<sup>38</sup> 丁晟權, 위의 논문(2002. 6), pp. 301-304; 丁晟權, 앞의 논문(2012), pp. 127-128.

<sup>39</sup> 『高麗史』卷94 列傳7 智蔡文.

至參禮驛 全州節度使 趙容謙 野服迎駕 朴暹奏曰 全州即古百濟 聖祖亦惡之 請上勿幸 王然之 宿長谷驛.

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관촉사 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개태사 상, 매산리 상, 관촉사 상 등 10세기 신양식 석불에 비해 양감이 쇠퇴하여 평판적인 면모를 보이며, 요대 불상 특히 하화엄사 소조불과 유사한 착의법과 안면 표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2/4분기일 것으로 여겨진다.<sup>40</sup>

그렇다면, 대조사 상은 어떠한 배경에서 11세기 2/4분기 부여지역에 조성되었을까. 대조사는 고려시대 林州(嘉林縣)의 치소 동쪽에 있는 聖興山城에 있는 사찰인데, 임주의 東資福寺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41</sup> 이러한 지방의 資福寺에 조성된 석불이 요대 불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거란)의 3차 침입 이후 본격화된 고려-요(거란) 양국 간의 교류와 관련이 있다. 특히 1020년 강화 이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사신의 왕래가 잦아졌으며 거란의 귀화인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sup>42</sup> 元曉의 起信論疏가 요에 전해져 반포되었고 요의 대장경이 고려에 전해지는가 하면,<sup>43</sup> 요나라의 불탑, 불상, 금속공예의 영향이 고려에 미치는 등 본격적인 불교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다.<sup>44</sup>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이 요 하화엄사식 착의법과 불상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던 계기와 관련하여, 하화엄사가 창건된 1038년 이후의 사신 교류 중 요나라의 西京 大同府가 설

<sup>40</sup> 대조사 상의 조성시기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있다. 크게 나누면, 관촉사 상보다 앞선 시기의 상이라는 견해는 10세기 중엽의 철불과 유사한 얼굴 표현 등을 근거로 940-950년대로 보는 최성은의 견해가 있으며, 동일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950-960년으로 비정한 문명대의 견해, 광종대 황제국 선포 직후 즉 960년대로 본 정성권의 견해가 있다. 이와 달리 김리나와 정은우는 관촉사 상에 비해 입체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관촉사 상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 166·167(1985. 9), p. 66; 문명대, 앞의 논문(2003a), pp. 131-132; 丁晟權, 앞의 논문(2012), pp. 185-186; 최성은, 앞의 책(2013), pp. 126-129; 정은우,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博物館紀要』 22(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7), p. 68.

<sup>41</sup>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23年; 『大東地志』卷5 林川 城池; 『新增東國輿地勝覽』卷17 忠清道 林川郡 佛宇. 八月 築加林城 以衛土佐平首加 鎮之; 聖興山古城 古加林城 周二千七百五尺 井三 舊有倉; 西資福寺 在乾止山 南有石槽 東資福寺 在聖興山 南有石槽.

韓基汶, 「高麗時期 定期 佛教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論叢』 27(2003), pp. 29-55;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2011), pp. 283-287.

<sup>42</sup>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pp. 100-102.

<sup>43</sup> 安啓賢, 「大藏經의 雕板」, 『韓國史』 6(國史編纂委員會, 1975), pp. 31-34; 李龍範,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1977), pp. 278-279; 김영미,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43(2002), pp. 47-77; 박용운, 『고려시대사』(일지사, 2008), pp. 374-376.

<sup>44</sup>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美術史學』 23(2009), pp. 277-311; 안귀숙,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요문화의 영향」, 『고려와 북방문화』(양사재, 2011), pp. 223-265; 鄭恩雨, 앞의 논문(2010. 3), pp. 43-71; 권보경, 「고려시대 보살상의 圓筒形 寶冠의 源流와 전개」, 『東岳美術史學』 15(2013), pp. 59-86; 한기문, 「高麗와 遼 文化交流의 樣相과 性格」, 『大丘史學』 115(2014), pp. 71-92.

치되었던 1044년의 使行이 주목된다. 1009년 요의 中京城 수축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sup>45</sup> 1044년의 사행 목적 역시 西京城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요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하화염사의 위상을 고려할 때,<sup>47</sup> 고려의 사신은 하화염사를 직접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요나라 중앙의 불상양식 즉 하화염사 양식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요 하화염사 불상을 고려에 재현했다면, 고려에 귀화한 거란인들 가운데에는 상급의 장인을 포함한 기술자의 분포가 높았으며 일부는 國工으로도 활약하였기 때문에,<sup>48</sup>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거란인들이 많이 살던 南京(서울)이나 수도였던 개경이 아니라, 왜 임주(부여)에 요나라 하화염사 소조불과 유사한 대조사 상을 조성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아마도 지방의 주요 거점이 아닌 임주에 최신 경향의 불상 조성을 가능케 한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1세기 중엽에 2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부여이씨가 주목된다.<sup>49</sup> 『扶餘李氏世譜』에 시조로 李稟(焉)이 등장하므로,<sup>50</sup> 李稟焉은 누대에 걸쳐 번성했던 勳臣老將이 아니라 11세기 중엽에 갑자기 立身出世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후기 親元勢力이 權門勢族으로 발전한 사례를 볼 때 이품언가는 요(거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요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요의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인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품언이 國工을 징발하여 임주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工部侍郎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조사 상이 직·간접적으로 요 하화염사 불상의 영향을 받았음에

<sup>45</sup> 『遼史』 卷14 本紀14 聖宗5 (統和) 27年 4月·12月.

夏四月 丙戌朔 駐蹕中京 營建宮室 …… 十二月 壬辰 遣使報哀于宋 夏 高麗.

<sup>46</sup> 『遼史』 卷19 本紀19 興宗2 (重熙) 13年 11月·12月.

十一月 丁卯 改雲州為西京 …… 十二月 己醜 幸西京 …… 己亥 高麗遣使來貢.

<sup>47</sup> 『遼史』 卷41 志11 地理志5.

清寧八年 建華嚴寺 奉安諸帝石像 銅像.

1067년(清寧 8년), 역대 요의 황제상을 화염사에 봉안할 정도로 요 황실과 화염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sup>48</sup> 『高麗圖經』 卷19 工技.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第淨僞頗多 不復前日純質耳.

<sup>49</sup>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德宗; 靖宗.

李氏 扶餘郡人 工部侍郎 稟焉之女; 容穆王后李氏 扶餘郡人 工部侍郎 稟焉之女 號昌盛宮 生悼哀公主.

<sup>50</sup> 『扶餘李氏世譜』에는 李稟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高麗史』의 기록을 바탕으로 李稟焉으로 지칭하였다.

도 불구하고, 하화염사의 본존인 석가모니불이 아닌 미륵불을 조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11세기 중엽 고려의 불교계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종은 거란(요)과 강화를 맺은 이후 法相宗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하려고 하였다.<sup>51</sup> 특히 후에 현화사의 주지가 되는 海麟이 화엄종의 대표적인 사찰인 해인사의 주지를 역임하는 등 법상종의 영향력은 전국적이었다.<sup>52</sup> 결국 외형에서 요의 경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당시 고려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품언가의 입장에서는 역시 왕실과 밀접한 관계였던 법상종의 主尊佛인 미륵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은 포천 백운동 출토 철불좌상 등 10세기 중엽 경기지역에 조성된 전통양식의 불상의 영향이 보이는 한편, 960년 무렵에 조성된 안성 매산리 상의 조형미의 영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10세기 4/4분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도상의 파괴, 과도한 장식성, 신앙식과 전통양식의 절충은 국가와 마을의 안녕을 기치로 내건 擧郡縣的 香徒結社가 조성을 주도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장인이 불사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안국사지 석불입상의 조성시기는 주변의 발굴에서 「太平十銘瓦와 함께 단일 형식의 막새기와만 출토되고 있어,<sup>54</sup> 1030년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5</sup> 안국사지 상은 앞 시기의 신앙식 석불과 달리 축소·변형된 것으로 보아, 구읍리 석조보살입상과 마찬가지로 거군현적 향도결사의 주도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리 석불입상은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여, 11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천을 경계로 2구를 조성한 것으로 보아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거군현적 향도결사의 발원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 가운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국가가 주도하였거나 國工이 파견되어 조성된 석불인 반면,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안국사지 석불입상, 고도리 석불입상은 郡縣民들이 주도한 香徒結社에 의해 조성된 석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넓게 신앙

51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沽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 1981), pp. 239-260.

52 朝鮮總督府 篇,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朝鮮金石總覽』(朝鮮總督府, 1919), pp. 296-303; 박현진,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2014.10), pp. 99-122.

53 金正환,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報』 32(2014. 12), pp. 363-375.

54 姜宗원 외, 『唐津 安國寺址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唐津郡·忠南發展研究院, 2001); 이훈 외, 『唐津 安國寺址』(忠清南道歷史文化院·唐津郡, 2006).

55 丁晟權, 「中原彌勒里寺址' 조성시기 고찰」, 『東岳美術史學』 9(2008. 6), pp. 155-156.

식 석불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세력에 따라 조성에 참여한 장인계층이 달라지면서 다른 조형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맺음말

왕건집권기에 조성된 경기지역 석불의 영향을 받아 괴체적 석주형 조형미를 완성시킨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의 조형성은 10세기 중엽에 조성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충주 원평리 석불입상을 비롯한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계승한 불상에도 영향을 주어, 장대성과 괴체감이 극대화된 시대양식을 형성하였다. 10세기 말 이후에는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처럼 전통양식과 절충되거나,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처럼 외래(요)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11세기 중엽 이후에는 발원계층의 확대와 장인 수급의 문제로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이나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처럼 형식화·단순화되면서 점차 토속성이 강한 불상으로 변모한다.

고려전기 신앙식 석불이 장대함과 괴체감이 강조된 석주형의 조형미를 보이는 만큼 조성배경을 순수하게 불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 가령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기념으로 조성한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분명히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기상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했던 불상이다. 광종대에 조성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과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이 면류관을 착용한 것은 광종의 황제국 선포와 관련이 깊다. 11세기 2/4분기에 조성된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에서는 당시 요(거란)와의 교류와 고려 불교계를 주도한 법상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은 국가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했던 거군현적 향도결사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이처럼 불교의 예배상이 다양한 정치적 숨적을 내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려시대 國家裨補思想에 의해 불교미술품이 국가비보를 위한 하나의 조형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Key Words)** 석불(石佛, stone Buddha), 고려전기(高麗前期, early Goryeo period) 신앙식(新樣式, new style), 면류관(冕旒冠, crown), 왕건(王建, Wanggeon), 광종(光宗, Gwangjong), 현종(顯宗, Hyeonjong)

■ 투고일 2015년 5월 29일 | 심사개시일 2015년 6월 4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1일 ■

## 참고문헌

### 1. 사료·경전

『高麗圖經』  
『高麗史』  
『均如傳』  
『大東地志』  
『扶餘李氏世譜』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遼史』

### 2. 보고서·단행본

강종원 외, 『唐津 安國寺址 精密地表調査報告書』, 唐津郡·忠南發展研究院, 2001.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2014.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이훈 외, 『唐津 安國寺址』, 忠淸南道歷史文化院·唐津郡, 2006.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1984.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朝鮮總督府, 1919.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3. 논문

강병희,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美術史學』 23, 2009, pp. 277-319.  
권보경, 「고려시대 보살상의 圓筒形 寶冠의 源流와 전개」, 『東岳美術史學』 15, 2013, pp. 59-86.  
金基德, 「高麗의 諸王制와 皇帝國體制」, 『國史館論叢』 78, 1997, pp. 159-172.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 166·167, 1985. 9, pp. 57-81.  
김영미,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요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 43, 2002, pp. 47-77.  
金春實, 「忠南 連山 開泰寺 石造三尊佛考-本尊像과 右脇侍 菩薩像이 後代의 模作일 가능성에 대하여-」,

- 『百濟研究』 21, 1990, pp. 111-141.
-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3, pp. 257-292.
- 文明大, 「毘盧寺 石造毘盧阿彌陀二佛像의 考察」, 『考古美術』 136·137, 1976, pp. 126-133.
- \_\_\_\_\_, 「開泰寺 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毘盧舍那丈六三尊佛像과 관련하여」, 『美術資料』 29, 1981. 12, pp. 1-11.
- \_\_\_\_\_, 「개태사(開泰寺) 석장륙삼존불입상-노사나(盧舍那) 장륙불상과 관련하여」,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p. 106-118.
- \_\_\_\_\_, 「대조사(大鳥寺) 석미륵보살상과 관촉사(灌燭寺) 석미륵보살상」,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p. 119-139.
- 박현진,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검토」, 『전북사학』 45, 2014.10, pp. 99-122.
- 서성희, 「高麗 初 예천 지역세력과開心寺 석탑 건립」, 『釜大史學』 25·26, 2002. 6, pp. 1-22.
- 安啓賢, 「大藏經의 雕板」, 『韓國史』 6, 國史編纂委員會, 1975, pp. 19-69.
- 안귀숙,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요문화의 영향」, 『고려와 북방문화』, 양사재, 2011, pp. 223-265.
- 嚴基杓, 「統一新羅時代의 幢竿과 幢竿支柱 研究」, 『文化史學』 6·7, 1997. 6, pp. 301-358.
- 柳喜卿, 「冕服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研究論叢』 22, 1973, pp. 223-275.
- 이미지,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關係」, 『한국사학보』 14, 2003, pp. 77-103.
- 李龍範,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1977, pp. 267-279.
- 任明美, 「高麗王朝代 高麗와 교류하였던 諸國과 高麗의 服飾制度에 관한 研究(2-4)-A.D 960-1142년 사이 200년간 北宋, 遼와 교류당시의 高麗服飾」, 『服飾』 20, 1993. 5, pp. 31-42.
- 전혜숙·김혜정, 「고려초 복식기록에 관한 고찰-광종·경종·성종대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1, 2013. 2, pp. 139-151.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4, pp. 5-40.
-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研究-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2002. 6, pp. 287-312.
- \_\_\_\_\_,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의 조성시기에 관한 연구」, 『법정학술논문집』,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pp. 294-307.
- \_\_\_\_\_, 「中原彌勒里寺址' 조성시기 고찰」, 『東岳美術史學』 9, 2008. 6, pp. 145-172.
- \_\_\_\_\_,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조성배경 再考-太祖 王建軍 屯營址 馬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白山學報』 92, 2012. 4, pp. 197-229.
- \_\_\_\_\_, 「論山 開泰寺 石造供養像 研究-조성시기와 조성배경에 關하여-」, 『佛敎美術』 23, 2012, pp. 59-93.
- \_\_\_\_\_,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봉업사지 석불입상과 關하여」, 『韓國史學報』 51, 2013. 5, pp. 167-197.

- 鄭恩雨, 「遼代 佛像彫刻의 研究(I)」, 『미술사연구』 13, 1999. 12, pp. 83-118.
-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博物館紀要』 22, 2007, pp. 73-105.
- \_\_\_\_\_,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서 보이는 북방적 요소」, 『美術史學研究』 265, 2010. 3, pp. 43-71.
- \_\_\_\_\_, 「송대 불교조각의 고려 유입과 선택」, 『미술사연구』 25, 2011. 12, pp. 39-65.
-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2010, pp. 157-188.
- \_\_\_\_\_, 「慶北 北部地域의 羅末 佛像에 對한 考察」, 『新羅文物研究』 5, 2011, pp. 3-25.
- \_\_\_\_\_,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 \_\_\_\_\_, 「新羅 下代-高麗 前期 佛教石造美術 發願者와 匠人의 變化」, 『新羅史學報』 32, 2014. 12, pp. 341-388.
-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昞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pp. 239-260.
-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경향」, 『美術史學』 6, 1992, pp. 106-115.
- \_\_\_\_\_,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미술사논단』 16·17, 2003. 12, pp. 79-113.
- 韓基汶, 「高麗時期 定期 佛教儀禮의 成立과 性格」, 『民族文化論叢』 27, 2003, pp. 29-55.
- \_\_\_\_\_,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民族文化論叢』 49, 2011, pp. 279-328.
- \_\_\_\_\_, 「高麗와 遼 文化交流의 樣相과 性格」, 『大丘史學』 115, 2014, pp. 71-92.
- Gridley, Marilyn Leidig, *Chinese Buddhist Sculpture under the Liao*, New Delhi: International Academy of Indian Culture and Aditya Prakashan, 1993.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려전기 신양식 석불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으며 정착되고 변용되었는가와 함께 신양식 석불의 조성배경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후삼국기 괴체적인 조형미의 완성이자 고려전기 신양식 석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태사 석불입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한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신양식 석불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신양식 석불의 편년과 조성배경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았다.

후삼국기 가운데 왕건집권기에 조성된 경기지역 석불의 영향을 받아 괴체적 석주형 조형미를 완성시킨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의 조형성은 10세기 중엽에 조성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충주 원평리 석불입상을 비롯한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계승한 불상에도 영향을 주어, 장대성과 괴체감이 극대화된 시대양식을 형성하였다. 10세기 말 이후에는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처럼 전통양식과 절충되거나,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처럼 외래(요)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11세기 중엽 이후에는 발원계층의 확대와 장인 수급의 문제로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이나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처럼 형식화·단순화되면서 점차 토속성이 강한 불상으로 변모한다.

고려전기 신양식 석불이 장대함과 괴체감이 강조된 석주형의 조형미를 보이는 만큼 조성배경을 순수하게 불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 가령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기념으로 조성한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분명히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기상을 대내외에 드러내고자 했던 불상이다. 광종대에 조성된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과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이 면류관을 착용한 것은 광종의 황제국 선포와 관련이 깊다. 11세기 2/4분기에 조성된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에서는 당시 요(거란)와의 교류와 고려 불교계를 주도한 법상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은 국가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했던 거군현적 향도결사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상이다.

이처럼 불교의 예배상이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려시대 國家裨補思想에 의해 불교미술품이 국가비보를 위한 하나의 조형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New Styles in Stone Buddhist Images in the Early Goryeo Period

**Jin Joung-hwan** \*

This study reviews how new styles of stone Buddhist images were adopted and evolved in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with considerations on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adoption of new styles occurred. First, this study examines a stone Buddha triad at Gaetaesa Temple, which can be said to represent the culmination of the grotesque-looking structural elegance of Buddha images of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starting point for new styles in stone Buddha images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en,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new styles of stone Buddha images by examining stone Buddhas wearing crowns. The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dating of the Buddha and the background for its creation.

The Buddha triad in question appears to represent the culmination of the grotesque-looking structural elegance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stone Buddha images erected in the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of Goryeo. The triad exerted a direct influence on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s in Maesan-ri, Anseong and at Gwanchoksa Temple in Nonsan, which were erected in the mid-10th century. We can also say that it exerted an influence on Buddha images, including the one in Wonpyeong-ri, Chungju, which had the styles of those mad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thus forming a unique style of the period that maximized elements of grandiosity and grotesqueness. However, they appear to mark a compromise with traditional styles, as shown by the one in Gueup-ri, Pocheon, or to reflect influence from the Chinese Liao style as seen in the bodhisattva at

---

\*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Daejosa Temple in Buyeo, during the late 10th century. From the mid-11th century, however, they were gradually superseded by images displaying a strong sense of locality, becoming somewhat stereotyped and simplified like those at the Anguksa Temple Site in Dangjin and in Godo-ri, Iksan, perhap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potential donors and the shortage of competent craftsmen.

With regard to the new styles of stone Buddha images of the early Goryeo Period, which exhibit a structural elegance reminiscent of a stone column and exude a sense of grandiosity and grotesquenes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look at the background for their erection from a purely religious perspective. Taking as an example the stone standing Buddha triad at Gaetaesa Temple, which was erected to commemorate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in 936, it must have been intended to show off the valiant spirit of the Goryeo Dynasty, which accomplished the feat of unifying the Later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in 936.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s in Maesan-ri, Anseong and at Gwanchoksa Temple in Nonsan, which were ere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jong (r. 949-975), wear crowns. It is associated with King Gwangjong's declaring himself as an emperor. Looking at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at Daejosa Temple, which clearly displays the influence of Liao in the 11th century, one can see signs of the frequent exchanges between Goryeo and the Khitan and the influence of the Beopsangjong (Dharma character school) which had a leading role in Goryeo.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 in Gueup-ri, Pocheon and the stone standing Buddhas at the site of Anguksa Temple in Dangjin, and in Godo-ri, Iksan were erected to pray for the peace and affluence of the regions and the country.

As such, the Buddha statues contained diverse elements of political significance because they viewed Buddhist artworks as being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under the influence of such thoughts prevalent during the Goryeo Period.